

저자  
(Authors) 박민영

출처  
(Source) [한국근현대사연구 12](#), 2000.3, 33-57 (25 page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12](#), 2000.3, 33-57 (2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근현대사학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498483>

APA Style 박민영 (2000). [연구논문] 雲崗 李康季의 생애와 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2, 33-57.

이용정보  
(Accessed) 안동대학교  
220.68.142.\*\*\*  
2021/01/23 16:2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雲崗 李康季의 생애와 사상

朴敏詠\*

### 1. 머리말

운강 이강년이 이끈 의병은 한말 의병부대 가운데 활동범위와 전력·전과 면에서 단연 두드러진 의병이다. 1895년 을미의병 때 처음 봉기한 운강은 1907년 재기항전에 돌입, 이듬해 순국할 때까지 강렬한 항일의지를 실천으로 구현한 인물이다. 강직한 성품을 지닌 타고난 무관으로서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유생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곧 문무를 겸비한 학자였다.

이강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sup>1)</sup>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한말 의병의 전체적 흐름

\* 충남대학교 강사

- 1) 이강년에 대한 연구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金義煥, 「한말 義兵運動의 分析」, 《韓日文化》 1-2,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1971 543-552쪽, 洪淳鉦, 「義兵 李康季部隊 戰鬪考」, 《軍史》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2,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1991, 171-194쪽, 鄭濟愚, 「李康季의 生涯와 思想」, 『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1991, 鄭濟愚, 「舊韓末 義兵將 李康季 研究」,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2, 李求鎔, 「雲崗 李康季의 抗日 義兵鬪爭」, 《江原史學》 7, 1991, 구완희, 「李康季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속에서 운강의 의병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조망하거나, 운강의 의병활동 자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곧 한말 의병전쟁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운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의병활동 구명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강년에 대한 연구가 이와 같은 경향을 띤 것은 발군의 항일전을 벌인 이강년 의병이 의병전쟁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점에 공감하더라도, 다른 한 측면으로는 운강 관계 사료의 절대량이 의병활동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한계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일정 방향으로의 연구 지향성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운강의 학문과 사상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 선결 목표를 두었다. 이 논문에서 학문수양을 중심으로 한 운강의 생애 전반을 논급한 것은 생애 규명이 인물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라는 판단에서이다. 학문과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통해 형성된 사상이 그 인물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고 볼 때, 생애와 사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강의 경우에는 특히 의병항전으로 표출된 행동양식이 그의 학문·사상과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자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운강의 학문과 사상을 구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학문과 사상의 바탕을 형성하게 되는 운강의 성장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운강 자신이 남긴 기록이나 관련 인사가 기술한 운강 관계 자료의 양이 결코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운강이 의병에 투신한 이후의 행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擧義 이전 운강의 행적을 해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본고에서도 생애의 각 시기에 따른 운강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시도할 수 없었다. 이 점이 본고의 가장 큰 한계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조건을 감안하고, 거의 이후의

검토-『雲崗先生遺稿』解題에 대신하여, 『埤川乙未義兵100돌紀念學術論文集』, 백산출판사, 1996, 정제우, 『운강 이강년 의병장』, 독립기념관, 1997

병향전과 직결된 운강의 사상과 여러 논변들을 구명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雲崗先生遺稿』를 기본 자료로 삼았으며, 기타 주변 인물들이 남긴 운강 관련 기록을 활용하였다. 운강에 관한 자료로는 현재 필사본의 『雲崗先生遺稿』(시기미상)와 공간된 『雲崗先生文集』(1949년), 『雲崗先生倡義日錄』<sup>2)</sup>(1948년) 등이 있다. 그리고 『운강선생문집』을 대본으로 한 『國譯雲崗李康季全集』이 1993년에 발간되었다. 『운강선생문집』은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이 남긴 書·文·檄 등의 기록들을 합쳐 간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운강에 대한 자료는 결국 『운강선생유고』와 『운강선생문집』 두 종이 현존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두 자료간에는 내용 기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밀한 분석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자료 가운데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정리된 『운강선생유고』가 『운강선생문집』과 『운강선생창의일록』의 저본이 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sup>3)</sup>

이 글은 한말 의병전쟁을 선도한 이강년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 체계화를 시도한 小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고가 의병장 이강년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2) 『운강선생창의일록』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1971년에 발간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에 전문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그 동안의 운강 연구에서는 이 자료가 특히 널리 활용되어왔다
  - 3) 구완희, 「李康季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雲崗先生遺稿』 解題에 대신하여」, 참조 『운강선생유고』의 사료적 가치에 착안한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운강 자료들에 대해, 특히 창의록을 중심으로 자료간의 차이와 사료적 가치의 정도를 치밀하게 분석 검토한 역작이다 이 연구에서도 『운강선생유고』의 사료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운강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운강선생창의일록』의 윤색된 기록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운강 연구를 위해서는 창의록뿐만 아니라, 문집과 유고 전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비판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 2. 생애

이강년은 철종 9년(1858) 12월 30일 경북 문경군 加恩面 道胎里 汪陵에서 李起台(1841~1877)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를 樂仁, 호를 雲岡(혹은 雲岡)이라 했으며, 전주가 본관으로 태종의 아들 孝寧大君의 19세손이 된다 어머니 宜寧 南氏가 태양을 삼키는 꿈을 꾸 뒤 그를 낳았으므로 운강은 아명을 出陽이라 불렀다 운강은 장성하면서 8척 2촌의 장신에다 용력이 출중하고 특히 병서에 조예가 깊어 일찍부터 장군의 재목으로 지목되었다<sup>4)</sup>

운강의 가계를 더듬어보면, 14대조 李承元이 通政大夫로 牧使(정3품)를 지낸 이래 13대조 李昌仁이 副司直(무관, 종5품), 11대조 李思騫이 判官(종5품), 10대조 李應吉이 副司果(무관, 종5품)를 지냈다 그후 인조 때 金自點의 외척이던 9대조 李聖民이 역모사건의 화를 피해 영남으로 내려와 안동 甘泉으로 낙향하면서 대체로 벼슬길이 멀어졌다. 그런 가운데 7대조 李世亨은 송시열이 服制문제로 유배될 때 상소를 올려 그를 辨誣하였으며, 5대조인 李允郁은 문과에 합격, 司諫院 正言(정6품) 벼슬을 하였고, 4대조 李齊參은 通德郎(정5품)이 되었으며, 그의 백부인 李起宅이 무과에 합격한 뒤 朔州府使를 역임했다. 이와 같이 운강의 가문은 왕실의 일족이면서도 벼슬이 5·6품의 당하관에 그쳤으며, 그 생활환경도 명문사족의 명성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향촌사회에서 학문을 닦고 도의를 숭상하는 전통적인 가풍을 유지해온 것 같다.<sup>5)</sup>

4) 운강의 가계에 대해서는 운강 자신이 정리한, 순국 후 시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 「孝寧大君子孫派系」(『海東義士 雲岡李康季先生 略史』, 운강선생기념사업회, 1980, 所收)에 효령대군부터 운강의 아들 承宰 대에 이르기까지 자세 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95년 의병에 투신하기 이전 운강의 성장기 이력이나 수학과정을 기록한 자료는 극히 零畧한 실정이다 1939년 의병 동지이며 동문인 李正奎가 지은 운강의 「行狀」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만, 여기서도 거의 이전 운강의 행적에 대해서는 가계와 효행 등 관행적인 기술을 제외하고는 매우 간략히 처리되어 있을 따름이다 행장 외에도 金晦鎭이 지은 「墓碣銘」(시기미상) 등에 초기 행적을 알려주는 단편적인 기록들이 산견되나, 행장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본문의 생애 서술과정에서 별도의 각주 처리가 없는 경우는 「행장」과 「묘갈명」에 의거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운강의 성장기 학문의 내용이나 師承관계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효행으로 이름난 조부 李德儀 아래에서 운강의 부친이 일찍부터 학자로 숙성하였던 점이나, 그의 백부 이기택이 삭주 부사를 지낸 점 등으로 미루어 학문을 숭상하는 가풍 속에서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가학으로 경학 등의 한학에 경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은 李晦鎭이 지은 운강의 「묘갈명」에서 “8세에 아버지를 여의고도 오히려 배움에 힘써 經史에 널리 통달하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나,<sup>6)</sup> 宋相燾가 운강을 “일찍부터 文學과 詞章을 성취한” 인물로 寸評한 대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sup>7)</sup> 이에 운강은 어린 나이에 이미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사승 관계나 체득한 학문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운강은 그뒤 고종 16년(1879)에 22살의 나이로 무과 丙科에 합격, 관직에 나아가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司果(종6품)에 임명되었다가 宣傳官이 되었다 운강이 무관으로 출세한 배경에는 무과 급제 후 삭주부사를 지낸 백부 이기택의 심대한 영향과 지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sup>8)</sup> 하지만 운강이 관직에 나간 직후부터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간의 각축으로 정국이 극히 혼란해져 급기야 임오군란·갑신정변과 같은 큰 정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에 운강은 갑신정변 이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운강은 학문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때로는 영남과

- 
- 5) 鄭濟愚, 「舊韓末 義兵將 李康季 研究」,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2, 5쪽, 「孝寧大君子孫派系」 참조
  - 6) 李晦鎭 撰, 「墓碣銘」, 『國譯雲崗李康季全集』, 淸權祠, 1993, 136쪽 “八歲孤猶力學 博通經史” 이하 각주 처리에서 별도의 서책명이나 출판사항 없이 문건(「」 표시) 이름만 기재된 경우는 『雲崗先生遺稿』를 인용한 것이다
  - 7) 宋相燾, 『騎驢隨筆』, 國史編纂委員會, 1955, 123쪽 “爲人磊落慷慨 膽氣不凡 文詞夙就” 한편 일제도 의병탄압기록인 『暴徒史編輯資料』에서 운강을 ‘문경의 유생’으로 파악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1, 538쪽)
  - 8) 백부 이기택(?~1887)은 운강의 무반 출세뿐만 아니라 일찍 타계한 부친 역할을 대신하며 운강의 장래를 열어준, 운강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생각된다 운강이 백부의 任所를 자주 찾았다는 기록(「행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113쪽)을 통해서도 이러한 양인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운강이 백부에게 올린 시 한 수와 제문 한 건이 현존한다

호남 등지를 두루 여행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체험하고 10여 년 동안 우국의 나날을 보냈다<sup>9)</sup>

그 뒤 일제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갑오경장을 강요해 한국에 대해 군사, 내정 양면에서 국권침탈을 감행하자, 한국민의 반일 적개심이 일시에 비등해 항일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되었다. 운강도 이때 서둘러 거의 계획을 세워 향리 문경에서 거병하였다. 거병 직후 운강은 안동관찰사 金奭中을 처단한 뒤 안동으로 들어가 의병장 權世淵을 만나 군사작전을 논의하기도 했다

운강은 의병항전을 전개하는 도중에 40세 장년의 나이에 毅菴 柳麟錫(1842~1915)과 師弟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체계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말 의병의 상징적 인물이던 유인석은 이때 55세의 완숙기에 접어든 대학자로 華西(李恒老)·重菴(金平默)·省齋(柳重勳)로 이어지는 정통 도맥을 승계한 華西學派의 종장이었다. 운강은 1896년 1월 그동안 연합전선 구축을 계획하던 유인석을 제천으로 찾아가 군중에서 사제의 誼를 맺어 일생동안 스승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sup>10)</sup> 이후 운강은 화서학과 성원 가운데 비중 있는 인물로 활동하면서,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에 입각한 尊華攘夷思想을 근본으로 하는 화서학파의 학문요체를 體認할 수 있게 되었다

운강은 진중에서 유인석 문하에 들어간 뒤 필생토록 그를 인생과 학문의 스승으로, 나아가 항일전 수행과정에서는 정신적 지주로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운강이 남긴 여러 문건 속에서 유인석에 대해 절대적으로 敬服되어 있던 그의 의식세계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다. 재기항전에 들어간 운강은 유인석에게 올리는 글에서 “난적을 토벌하고 원수 오랑캐를 멀해 나라의 옛 법도를 회복코자” 의병을 재기한 것으로 목적을 천명한 뒤,

9) 李正奎, 『恒齋集』 권16, 「雲崗李公遺事」, 9쪽 “少登武科 而見國事日非 不樂爲仕 退居湖嶺之間 徒尙其志”

10) 「行狀」, 『國譯雲崗李康季全集』, 114쪽 “聞毅菴柳先生舉義湖西 學問德義 爲斯文正宗 率衆歸附 不但以將幕之義事之 因以定師生之分 服勤慕悅 如七十子之服孔子”

성인의 대도를 삼가 지키는 것은(의병을 일으킨 것은-필자) 바로 평일(선생의) 門下에서 강론하여 가르침을 받아 하늘과 땅 사이에 옳을 ‘義’ 한 자가 있음을 알아 굳게 가슴 속에 간직하고, (저의) 한 몸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sup>11)</sup>

라고 하여, 자신의 재기향전 투신이 곧 존화양이의 의리를 요체로 한 스승 의암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실천과정이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써 의암의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과 사상은 운강에게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운강은 유인석 휘하에서 제천의진의 유격장에 임명되어 5월 하순, 제천성이 실함될 때까지 문경·수안보 등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출동한 宣諭使 張基濂 휘하 관군의 공격을 받고 최후의 거점이던 제천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유인석은 동지 문인사우들과 더불어 양서지방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1896년 8월 서간도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때 後軍將을 맡았던 이강년도 스승 유인석의 뒤를 따라 망명하려 했으나, 영월에서 진로가 막혀 부득이 소백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해 8월 소백산에서 휘하 의병을 해산시킨 뒤 단양 金采洞으로 들어가 노모를 모시고 은신해 있었다.<sup>12)</sup>

1897년에 운강은 스승 유인석을 만나기 위해 단신으로 서간도에 들어가 수개월 동안 “요동 들판을 遊離한 뒤” 귀국했다.<sup>13)</sup> 그러나 자료부족으로 운강이 서간도를 여행한 구체적인 시기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11) 「答上毅菴先生」(戊申年 2月 12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36쪽

12) 「倡義事實記」

13) 「倡義事實記」, 운강이 서간도에 들어가 체류한 시기와 기간을 확실하게 밝혀 줄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다 위 「창의사실기」의 기록도 傳聞에 근거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운강 「행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柳先生率兵渡遼 公追後繼進 事不諧意 不得已返國”(114쪽)라고 하여 서간도에 여행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고, 「묘갈명」에서는 “毅菴引兵渡遼 頃之公亦杖劍從之 懸軍入絕塞 難以爲謀 歲餘復還國”(137쪽)이라 하여 1년 남짓 체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운강이 3년 동안 서간도에 체류한 것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운강은 「再檄告文」에서 “遭時不利 狼狽走北 遊離遼野 孤誠未效”(72쪽)라고 하여 을미의병 해산 이후 서간도를 여행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귀국 이후 윤강은 학문수양에 진력하는 한편, 화서 문파의 공동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무렵 윤강의 학문과 사상이 완숙의 경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이 시기 윤강의 학문매진 경향과 스승 유인석에게 심취된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강론에 깊이 정성을 쏟아 즐거이 근심을 잊었고, 또 의암 선생에게 깊이 感發되어 항상 (윤강이) 말하기를 “나에게 을미·병신의 의병 일이 없었다면, 의암 선생의 문하에 들어올 연유가 없었으리니 심히 저급한 정도의 사람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기뻐 따르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윤강은 이 무렵 호남·영남 각지를 유람하며 이름난 선비들과 교류하며 性理와 典故, 그리고 禮樂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기수양에 진력했다.

한편 1899년 충주에서 華西 李恒老의 문집을 간행할 때 윤강도 여기에 참여했다. 그후 문집이 완간되었을 때는 평북 泰川까지 올라가 그 일대의 동문들에게 문집을 배부하는 등 화서 문파의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sup>15)</sup>

그 후 일제의 대한침략은 더욱 가속화되어,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실제적인 국권은 일제의 손아귀로 들어가 대한제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을사조약 체결 직후 윤강은 재기항쟁을 도모하려 했으나, 뜻밖에 병을 얻어 즉시 거병할 수 없었다.<sup>16)</sup>

윤강은 을미의병 때의 동지 安成海 등과 함께 1907년 5월 제천에서 재기항쟁의 기치를 들었다. 이때부터 그는 이듬해 7월 청풍까지성[鵲城] 전투에서 체포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단양·제천·원주·영월·횡성·강릉·청풍·충주·문경·예천·영주·봉화·안동 등 경북과 강원, 그리고 충북 일대를 돌며 일제 군경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그 명성을 드날렸다.<sup>17)</sup> 윤강은

14) 『倡義事實記』, “專精講學 樂而忘懷 又於毅翁 甚有感發 恒曰 我非乙丙事 無緣入毅翁門下 做得甚底物 事其悅服之心 可見矣”

15) 『倡義事實記』, 『國譯雲崗李康全集』, 292쪽

16) 『再檄告文』(丁未年 10月)

17)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175쪽

그동안의 連戰으로 인해 전력이 극도로 소모되어 새로운 활동근거지를 마련코자 영월을 거쳐 청풍으로 남하, 까치성에 유진하던 중 제천에서 출동한 일본군의 기습을 당했다. 이강년 의병은 이들을 맞아 최후의 일전을 벌였으나, 전세가 기울어 도선봉 河漢瑞 등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은 전사하고, 운강도 총상을 입은 채 포로가 되고 말았다.

운강은 피체 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대한 의사·선비로서의 기개를 조금도 잃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일관했다. 체포된 직후 일본군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한다. 충주에 일시 감금되었을 때에는 주민과 吏屬에게, “그대들은 나를 아는가? 내가 거의한 이유는 討賊復讐코자 함에 있었다. 지금 불행히도 포로가 되었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나, 이후 나보다 더욱 有爲한 인물들이 반드시 등장하리라 성인의 이른바 ‘人生直 罔生幸免’을 어찌 의심하리오”<sup>18)</sup>라고 하고, 자신의 사후에도 항일전이 부단히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하여 운강은 1908년 10월 사형 집행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도 전국 의병에게 다음과 같은 告訣文을 남겨 국권수호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는 양심이 격동함을 참을 수 없어 병신년(1896) 이래로 13년간에 두번 義旗를 들고 일어나 30여 회전에서 賊酋 50여 명을 참수하였다. …… 이 몸은 尊華攘夷의 大義에 죽는 것이니, ‘하루를 더하더라도 그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이제는 그만이 되었다. …… 동지들에게 바라는 것은 賊勢가 성하다 하여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마시고 더욱 큰 의리에 돈독하며, 피를 뿌리고 한 곳으로 매진하시어 광명한 날을 기다리시라!<sup>19)</sup>

운강은 또 종제 君弼에게 영결하는 편지에서 “이제 장차 죽음을 받으려 하니 속된 情理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슬프겠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는 탄탄하여 마치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한 구절도 임종을

18) 宋相燾, 『騎驢隨筆』, 124-125쪽

19) 「告訣八域同志士友」(戊申年 9月 12日)

눈앞에 둔 의사의 담담하고 의연한 심경을 잘 드러낸 대목이다<sup>20)</sup> 그리고 아들 承宰에게는 사후 장례절차에 대해서까지 소상히 지시하는 다음과 같은 遺命을 남겼다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수습하여 네 아우를 데리고 그 날(被刑日- 필자) 옥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죽은 뒤 사흘 안에 마땅히 장사지내야 하는데도, 고향의 산이 길이 멀어 일과 힘이 棺을 수레에 실어 반장하기 어려우니, 이 뜻으로 자세히 宗家에 알려 墓地 하나를 효령대군 묘소의 옆에 빌리기를 청함이 좋을 듯하다<sup>21)</sup>

### 3. 尊華攘夷思想

운강은 유인석을 정점으로 한 화서학과 인물들의 공통된 거의 이념이었던 존화양이론에 깊이 경도된 인물이다. 곧 그의 학문과 사상은 유인석의 그것과 거의 일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 500년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의 특성은 독존성과 배타성에 있다.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론으로 무장한 재야의 유생들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노골적인 한국침략으로 야기되는 위기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수호를 인류 보편의 가치와 질서 수호, 곧 존화양이의 차원에서 인식했다. 항일의병의 이념적 기반이 된 위정척사론은 바로 이런 존화양이 사상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므로 위정척사론과 존화양이 사상은 표리를 이룰 만큼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말기의 여러 학파 가운데서도 李恒老(1792~1868)를 정점으로 하는 화서학파는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는 시대상황에서 항일투쟁의 이념적 연원이 된 위정척사·존화양이론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항일거의론으로 점층적으로 연결된 화서학과 존화양이사상의 핵

20) 「遺訣從弟君弼」(戊申年 9月 9日)

21) 「遺示承兒」, 『國譯雲崗李康孫全集』, 65-66쪽 운강의 묘소는 현재 상주군 化北面 立石里에 있다

심은 소중화론에 있었다 소중화론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원래 中原을 차지한 중국이 堯舜 이하 夏·殷·周 삼대의 帝王과 孔·孟·程·朱子 등의 聖賢이 嫡傳을 계승하고 예악·문물과 도덕·학문이 탁월하여 천하의 華脈을 이어 온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조선은 시조 檀君과 ‘殷師’인 箕子의 옛 강토로 일찍이 華의 기틀을 열었지만 신라·고려 시대에는 문헌이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 뒤를 계승한 조선에는 聖王과 先正이 서로 이어 위로는 治教가 밝게 되고 아래로는 풍속이 아름답게 바뀌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華夏의 明이 夷狄의 淸에게 멸망된, 곧 ‘神州陸沈’한 이후로는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화맥을 傳受하게 됨으로써 천하에서 유일하고도 당당한 小中華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중화론이 도출되는 과정에는 민족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부여의 동기가 내재해 있었다 그리고, 조선(소중화) 문명을 최고 상위로 한 세계 각 문명에 대한 차등의식도 있었다 화서학파에서는 華와 夷의 속성에 대해서, 華가 제왕의 承統과 성현의 淵源을 비롯해 예악문물을 통칭하는, 곧 완벽한 인류문명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夷는 華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치럼 至善極美한 영역의 華를 항상 파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의 이면에는 華와 夷가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氷炭不相容의 모순·상극·투쟁관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서학파 인물들이 존화양이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역설하게 되는 근본 입지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있었다.

한편 화서학파 인물들은 1876년 개항 이래 조선에 침투하던 일제 침략 세력을 과거 역사에서 설정되어 온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도 교활한 ‘夷’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하에서 볼 때, 제국주의(‘양왜’)가 소중화의 조선을 침범하는 시대상황은 미증유의 대변란, 곧 ‘萬古所無之大變’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 침략은 곧 인류 문명의 실체인 華의 존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화서학파 거의 인물들이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시대적 고통을 국망과 親喪으로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절실히 느꼈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

22)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8, 30-40쪽 참조.

다<sup>23)</sup> 이런 인식은 華를 국가와 민족의 가치수준을 넘어선 절대적 상위개념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와 민족은 오직 華를 보전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되고, 華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국가와 민족은 그 의미가 변질되고 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국가와 민족보다도 華를 더욱 강조했던 유인석의 논리가 결코 맹목적인 慕華思想의 발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인석을 정점으로 하는 화서학과 거의 인물들의 이상과 같은 존화양이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역사적인 상황이 변천하게 되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천을 전제로 한 이론 체계이다. 다시 말해 1895년 거의 이전에 전개되었던 이항로의 존화양이론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데 비해 유인석을 비롯한 거의 인물들의 존화양이론은 소중화론 등과 같은 화서의 이론을 철저히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항전, 서간도 망명을 거치는 동안 그 이론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되면서 강렬한 실천논리를 표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이 바로 화서학과 존화양이론의 특징이다.

운강 역시 이상과 같은 유인석을 비롯한 화서학과 인물들의 존화양이론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격문 속에 나타난 운강의 존화양이론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자.

中華가 망하고 道가 멸절하였으니 이보다 더한 변란이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동방은 神州陸沈(명청교체-필자) 이래 오로지 剝上의 碩果(碩果不食-필자)에 부응하여 학문의 정맥이 위로 朱子에 접하고 神功을 배양함이 兩漢을 뛰어 넘었는데, 이것까지 아울러 화를 입었다. . . 陽脈을 부지함은 공이 이보다 큰 것은 없으며, 하늘의 뿌리[天根]를 보호함이 누가 이 소원이 없겠는가 이미 조정대신 가운데는 한 사람도 토벌을 청하는 이가 없는 까닭으로 초야의 많은 선비가 擧兵을 의론하는 것이다. . . (의병을 일으켜) 華夷의 위치를 안정시키고 忠逆의 명분을 바르게 한다면, 어찌 다만 한 나라의 功만 되겠는가 실로 이것은 道를 萬世에 보위하는 것이다<sup>24)</sup>

23) 『昭義新編』 권3, 「與李敬器宜慎書」, 60-61쪽

24) 「檄告文」, 『國譯雲崗李康奎全集』, 80-81쪽

위 격분에 나타난 운강의 존화양이론은 이항로로부터 유인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화서학파의 역사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것으로, 華의 수호 내지 보존을 표방한 의병은 실로 道를 영원히 보위케하는 절대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논리이다. 운강이 을미거병 이후 유인석의 문하에 들어온 이래 화서학파의 학문에 깊이 경도되면서 화서 이래 先師들의 학문과 사상을 體認한 결과 이와 같은 논거의 틀을 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운강은 일제가 한국침략을 본격화한 이후 화맥이 실추되고 종사가 위태로워진 상황을 ‘온 세상이 다 같아진 것(宇內大同)’으로 인식했다.<sup>25)</sup> 그리하여 그는 이적금수인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조선만이 가진 문화적 독창성과 차별성이 파괴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과 같은 탄식들이 운강의 이와 같은 의식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가 된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이적이 되어 망하는 것은 차라리 슬퍼할 것 없지만, 사람이 금수가 되어 죽는 슬픔을 가히 이길 수 있으리오. 우리 조선은 당당한 소중화의 나라로 빛나는 문명의 다스림이 있었으니, 삼천리 강토가 어찌 원수 왜놈이 삼키게 될 줄 알았겠으며, 5백 년 의관문물이 糞壤에 빠지게 될 줄 생각하였겠는가.<sup>26)</sup>

아, 나라의 큰 변란과 시대의 큰 화란을 어찌 차마 말하리오. 이적금수의 道는 지금 이후로는 온 세상이 같을 것이요, 복희씨 이래로 내려오던 華夏의 一脈이 여기서 끊어지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통곡하고 통곡할 따름이다.<sup>27)</sup>

운강은 결국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항일투쟁을 통한 일제구축, 국권회복의 성패 여부에 따라 사람으로 남는가, 아니면 짐승이 되는가가 판별된다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이런 맥락에서 운강은 또 의병을 일으킨 뒤

25) 「與朴梅堂」(戊申 3月 27日), 「與王參奉敬時濟夏」, 『國譯雲崗李康季全集』, 41-44쪽

26) 「召檄」(丁未年 7月), 『國譯雲崗李康季全集』, 84-85쪽

27) 「與王參奉敬時濟夏」(丁未年 10月 27日), 44쪽

28) 「召檄」(丁未年 7月), 『國譯雲崗李康季全集』, 87쪽

평창 蓬坪지역의 士民에게 통고하는 글에서 화이론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통탄하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된 시대적 배경을 논급하고 있다

4천 년 華夏正脈과 2천 년 聖賢大道와 (조선) 5백 년 禮義典型과 3천 리 소중화 인민은 마침내 희망이 없이 금수의 굴속으로 빠져들고 마는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부르지만 하늘의 뜻이 막막하니, 통곡하고 또 통곡할 뿐이며, 내 어찌 하리오 이 몸은 義理의 大宗師(유인석-필자) 문하에서 대략 가르침을 받아 尊華·攘夷·討賊·復讐 네 가지의 큰 의리를 마음의 요체로 삼아 천하의 강적,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원수와 더불어 사투를 벌인 지 10여 년에 …… 그 情理가 슬프고 그 형세가 외로웠다<sup>29)</sup>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운강은 陽이 다할 수 있는 이치가 없듯이, 하늘의 이치는 반드시 正道로 돌아온다는 ‘理의 떳떳함[理之常]’을 믿어 국권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30)</sup> 이런 논리는 이항로 이래 유인석에 이르기까지 화서 문파의 인물들이 인류문명의 지선극미한 상태, 華脈의 단절은 대자연의 섭리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머지 않아 일제는 패퇴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신념과 동일한 것이다<sup>31)</sup>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운강의 ‘理之常’에 대한 확신은 화서학파의 실천적 학문의 요체를 그대로 전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운강은 강렬한 화이론적 의리관에 입각해 항일전에 투신했기 때문에, 존화양이와 토적복수를 거병의 목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sup>32)</sup> 나

29) 「通告蓬坪士民文」(丁未年 12月 25日) 『운강유고』의 이 통고문은 『운강문집』에서는 운강이 그의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서인 『遺示承兒』 뒷부분에 침묵되어 있다 서두의 관행적인 도입 부분을 제외한 통고문의 거의 전문이 『운강문집』 속에 침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집 편집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착오로 생각되지만, 편집자의 의도적인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구원회는 『운강문집』 편찬 과정에서 이 통고문이 다른 민간 전령문들과 함께 폐기되었으나, 편집시 실수로 덧붙여진 것으로 보았다(구원회, 「李康季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343쪽)

30) 「通告蓬坪士民文」, “君子曰 陽不可盡之理 古人云 千秋必返 理之常”

31) 『昭義新編』 권1, 「答邊德一錫玄」, 22쪽, 『昭義新編』 권3, 「書贈平山五友」, 93쪽

32) 「答黃淳一」(戊申年 9月 5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53쪽

아가 운강은 또 “비록 하루를 더하더라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 천신만고에 천하에서 막강한 도적을 항거하니, 그 형세를 말하면 외롭고, 그 의리를 말하면 장하다”<sup>33)</sup>고 피력했듯이,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일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擧義에 대한 論辯

##### 1) 재기항전에 대한 신념

운강이 의병항전에 투신한 내적 동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을미의병의 경우에는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운강 자신이 남긴 기록은 없고, 뒷날 운강의 행적을 기록한 관련 자료들도 일제침략으로 조선이 처한 외적인 위기상황만을 운강의 거병 동기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나라운수가 불행하여 왜적의 화가 날로 더하였다 일본은 통상과 수호를 빙자하고 우리를 현혹하더니, 마침내 국모를 시해하는 변고가 있었고, 뒤따라 머리를 깎고 服色을 고치는 화가 일어났다. 공(운강-필자)도 이때 고향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키고<sup>34)</sup>

고종 병인년에 양요가 있는 지 얼마 아니되어 왜인이 말썽을 일으켜 매양 깊이 침범하더니 갑오년에는 賊臣이 왜인을 이끌어 궁궐을 침범하고 을미년에는 적신이 또 왜인을 이끌어 궁궐 안으로 들어가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의 머리를 깎았으며, 선왕의 문물제도를 모두 혁파하여 바꾸었으니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았다 공이 이를 부끄러워하고 분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가재를 훌러 의병을 일으켰다<sup>35)</sup>

33) 「與安東義將金龍翔」(丁未年 12月 24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49-50쪽

34) 「倡義事實記」, 『國譯雲崗李康季全集』, 283쪽

35) 「墓碣銘」, 『國譯雲崗李康季全集』, 136-137쪽



위의 기록에 의거해볼 때, 운강은 일련의 일제 침략정책과 정부의 개화 시책의 혼재 속에서 이루어진 變服습과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등 연속 되는 사건들에 충격을 받고 거의한 것이다 그러나 을미의병이 봉기하는 시대배경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 외에 운강의 내적인 동인을 더 이상 해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을미의병 이후 운강이 재기항전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관련자료를 통해 거의 사상·이념적 측면을 해명할 수가 있다 먼저 운강은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한 한말의 시대상황에 대해 일제의 한국침략 단초가 된 사건이 곧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로 인한 개항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항 이후 일제 침략세력과 여기에 결탁한 국내 친일 개화파(蠹賊)가 연합해 나라를 망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36)</sup> 운강의 이런 시국관은 그의 스승 유인석이 을미거의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시국 인식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sup>37)</sup>

운강이 재기항전의 기치를 내 건 것은 을사의병이 재기한 이후 전국적인 항전으로 확대 격화되어 가던 1907년 5월에 가서이다. 중기의병 시기에 일어난 다른 의병에 비해 재기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운강은 원래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 곧바로 재기할 계획을 세웠으나 불행하게도 罹病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sup>38)</sup> 그 이상의 구체적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부족으로 해명할 수 없다

운강은 을미의병 해산 이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일관되게 재기항전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런 경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운강은 1897년 유인석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의병항전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나아가 의병이 중지된 시대상황을 ‘危急存亡之秋’의 절박한 위기상황으로 깊이 우려했다

36) 「檄告文」

37) 『昭義新編』 권1, 「檄告八道列邑」, 1-2쪽, 「西行時在旌善上疏」, 5-6쪽

38) 「再檄告文」, 『國譯雲崗李康奎全集』, 72쪽

국사가 날마다 잘못되고 인심이 점점 변함을 보니, 금일 停止(의병항전 중단—필자)한 禍가 전보다 배나 되고 姑息하는 賊이 한결같이 시비를 얼버무려서 거짓 충성의 말로써 모든 일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백성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흐리게 함으로써 인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흩어져 자사로 하여금 진취하게 해도 다시는 여망이 없다 이는 진실로 ‘危急存亡之秋’로 어찌 밝게 분석하여 가려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sup>39)</sup>

운강은 곧 의병 중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후 국운이 기울고 민심이 퇴락한 데는 의병 중단도 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운강의 이와 같은 인식은 결국 의병 재기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 유인석에게도 일관되게 의병 재기의 방향으로 처신해 줄 것을 간곡히 上言하게 된다

그 뒤 운강의 이와 같은 의병 재기에 대한 염원은 1902년 유인석에게 올리는 또 다른 서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유인석이 중심이 되어 과거 을미의병에 동참한 화서학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그들의 주장을 천명한 자료들을 모아 1902년 『昭義新編』을 간행했다 이 책의 간행목적은 의병을 주창한 인물들의 위정적사·존화양이의 정신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sup>40)</sup> 하지만 운강은 『소의신편』 간행에 대해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즉시 재기항전을 주창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즈음 그는 스승에게 올리는 편지에서 재기항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39) 李九榮 編譯, 『湖西義兵事蹟』, 修書院, 1993, 162-163쪽, 원문, 「上毅菴先生(丁酉年十一月晦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679-680쪽 이 서신은 『운강선생유고』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문집 번역본인 『雲崗李康季全集』을 간행하면서 『湖西義兵事蹟』에 들어 있는 운강의 시 「친우 安愼模가 술가하여 요동으로 이사한 것을 듣고」와 「澤雲 묘에 오르다」 두 수와 함께 전재, 원문없이 번역 문만 수록하고 있다

40) 朴敏泳, 「毅菴 柳麟錫의 衛正斥邪運動」, 『義兵戰爭研究 上』, 지식산업사, 1990, 277쪽 참조

이때에 미쳐 學義하는 자가 만약 再擧의 檄書를 돌린다면 비록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의리의 바름을 잃지 않지만, 인쇄에 붙여(소의신편 간행을 의미함-필자) 檄告하여 서울과 나라 안에 돌려 보인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좋아하는 자가 명예를 닦아 탐하지 않겠는가<sup>41)</sup>

위 인용문을 통해 볼 때, 윤강은 결국 이 시기에 과거 의병에 투신한 인물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처신은 재기항전이라고 믿고 있었다 『소의신편』 간행과 같은 점진적인 대국민 啓導작업은 여러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보다는 더욱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재기항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에게 존화양이의 대의를 직접 講說, 민심을 ‘興動’케 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상과 같은 의병 재기를 향한 윤강의 일관된 신념은 1907년 결국 그로 하여금 재기항전의 대열에 투신케 했다 다시 말해 윤강의 재기항전은 민족의 위기상황에서 배양된 일관된 신념에 따른 처신이었던 것이다

한편, 윤강은 일제에 의해 유린된 대한제국의 국권은 한민족의 자주·주체적 역량으로 회복해야만 한다는 굳은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재기 이후 정상·총청·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며 항일전에 진력하던 윤강은 청을 비롯한 외국의 힘을 빌려 국권을 회복하지는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근일에 일을 논하는 자가 입을 열면 문득 (외국에) 구원을 청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크게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다 나라가 이미 왜적에게 탈취당해 君父가 비록 마음이 있으나 청나라에 군사를 구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갑오년의 평양패전이 있어 청의 군인이 모두 存信하지 않을 것이다 …… 가령 天機가 自然하여 여러 나라가 연합 공격하여 왜적을 없앴다 하더라도, 다시 종묘사직이 위태로운 화는 실로 끊임이 없을 것이니, 우리의 위급함을 구하고 적을 토벌한 후로부터는 문득 영력제가 당한 면전의 화(청원국으로부터 당할 국권침탈을 의미함-필자)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42)</sup>

41) 「上毅菴先生」(壬寅年 2月 晦日), 『國譯雲崗李康季全集』, 32쪽

42) 「答上毅菴先生」(戊申年 2月 12日)

곧 운강은 청을 비롯한 외국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외국의 힘으로 일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외국에 의해 또 다시 국권이 침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는 한민족의 자주·주체적 역량에 의한 국권회복만이 민족의 전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의 냉엄한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주체적 자각이 그로 하여금 항일전선에 투신, 일제 구축의 길로 나서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충군애국론

운강은 의병에 투신한 후, 거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천명하고 열강의 후원을 기대하기 위해 각국 영사관에 통고문을 보냈다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에 입각한 존화양이론에 깊이 경도된 운강이었지만, 국제관계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였다 즉, 의병의 활동목표가 정의와 인도, 인륜과 의리의 正道를 밝히는 데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의 국권침탈의 부도덕성 내지는 야만성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한민족의 국권회복투쟁에 대한 성원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운강은 그 통고문의 끝에서 “만고에 군신이 없는 짐승같은 도적(일제-필자) 및 본국 신민의 심성을 바꾸어 도적에 붙어 공모하는 자(친일파-필자)를 단죄함으로써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約·信·法·義 네 글자의 지극히 귀중한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니, 우방의 여러분께서는 밝게 살피시라”<sup>43)</sup>고 의리론에 입각한 거병 목적을 천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위의 통고문에서 펴고 있는 논지의 저변에는 의병이 충군애국의 의리정신에서 나왔음을 밝히는 명분론적 정

43) 「通告各國領事館文」, 『國譯雲崗李康季全集』, 91쪽 운강이 이와 같이 각국 영사관에 통고문을 보낸 것은 을미의병 때 유인석이 역시 의리론에 입각해 각국 공사에게 통고문을 보내 의병의 활동목표를 천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湖西義兵事蹟』, 39-40쪽) 이때 영국영사는 의병에 동의를 표하는 회신을 유인석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독립운동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432쪽)

당성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의리와 명분론에 철저했던 윤강은 당연한 귀결로 충군애국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충군의식은 곧 윤강의 거병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의병의 지향목표가 되는 것이다. 충군의식은 전국 각지의 의병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의리와 명분에 깊이 경도된 윤강과 같은 화서학과 성원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윤강의 충군의식은 의병해산을 종용하기 위해 파견된 선유위원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특히 선명히 나타나 있다

군신의 대의는 천지의 떳떳한 법이니, 임금의 명령[君命]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음은 반역이고, 君命이 아닌 것을 君命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한 반역이다. 조선 5백 년 예악과 삼천리 강토가 저 왜놈의 삼키어 더럽히는 바 된 것이 우리 임금의 명령인가 국모가 시해를 당하고 군부가 머리털을 깎이는 재앙이 우리 임금의 명령인가 정부의 稅納이 저 도적의 저울질하는 바 됨이 우리 임금의 명령인가 이것이 우리 임금의 명령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옛 것을 회복시켜 놓는 것[復舊], 우리 임금을 위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것을 우리 임금께서 이를 금하여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의병-필자)이 있음이 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신다 일이 있음이 들리지 않음은 임금의 충명을 가리는 것이다. 선유문은 강요한 조칙[矯詔]이 아니라 거짓 조칙[僞詔]이다. 僞詔에 따라서 임금의 마음을 받들지 아니하여 신하된 의리를 잃는 자는 실로 이적의 무리이다. ... 이처럼 깨우쳐 고한 뒤에도 불의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군대를 옮겨 먼저 토벌할 것이다<sup>44)</sup>

윤강의 입장에서 볼 때, 의병해산을 강요하는 선유문은 고종의 자율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주의 본의를 거슬러 일제의 지령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곧 선유문은 강압하에 함부로 고친 ‘矯詔’의 수준을 넘는 국왕의 자율적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僞詔’인 것이며, 이 명령을 수행하는 선유사는 왕명을 받드는 신하가 아니라 일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逆臣으로 본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의병의 충군애국정신을 상대적으로 극대화시켜주는 논리이기도 하다

44) 『曉告宣諭委員文』, 『國譯雲崗李康季全集』, 93-94쪽

### 3) 군비조달 논변

한편, 운강은 항일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비조달 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각지에서 의병과 주민들 간에 종종 야기되던 갈등을 심각히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항일전 수행과정에서 발표된 여러 문건 가운데는 이 문제를 언급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운강은 항일을 표방한 여러 의진이 실제로는 軍需와 軍衣만을 탐하며 적의 칼날과 대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위 ‘假義’가 횡횡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들은 곧 의병에 가탁한 강도의 무리라고 강경한 어조로 맹비난했다. 특히 그가 평창군 蓬坪 土民에게 보내는 통고문은 군수물자를 수집하고 군사들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던 의병의 民弊를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곳의 의병 동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적(일제 군경-필자)을 피하기를 물과 불처럼 하고 백성 괴롭히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 평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강도도 차마 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義’를 이름으로 내 건 자들이 어찌 서슴없이 不義한 짓을 하는가. 도적을 토벌하는 앞날의 기약은 시일을 단정해서 지적할 수 없으나, 의병의 末流의 폐단은 특별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나는 길마다 말머리에서 의리의 요체[義諦]를 대강 펴온 것이다.<sup>45)</sup>

재기항전 이후 운강이 두번째로 공포한 1907년 10월의 격고문에서도 의병이 민간에서 야기하는 여러 폐해를 심각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운강은 義로써 不義를 치는 것 또한 의거라고 규정한 뒤, 민간에서 군사 소모와 군수품 수집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功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일[事]을 해침이 또한 가볍지 않다”고 하며 모두 함께 이들을 토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6)</sup>

운강은 항일전을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군자금을 부호들의 出捐과 국가 세금인 戶布錢과 結錢 등으로 충당했던 것 같다. 운강은 이와 같은

45) 「通告蓬坪土民」(丁未年 12月 25日)

46) 「再檄告文」(丁未年 10月)

조달 재원에 대해 그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戶穀은 본디 국가 用兵의 재화인데도 근일에 흉적이 혁파하는 바 되었으니 義軍에 쓰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것이며, 結錢은 본래 국가의 공물인데 요사이 는 원수 오랑캐가 거두어 취하는 바 되었으니 의병의 군량에 이마지함이 근거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여 公的인 것에서 취하는 방도이다 이른바 부귀한 자는 일찍이 국가가 태평한 때에 이미 극히 영화를 누리고 현달하였으니 이제 王事를 경영함에 公道를 잊어 스스로 豕虱(돼지에 붙어사는 이)로 돌아감을 달게 여겨 알지 못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백성을 위하여 私的인 것에서 취하는 說이다 47)

곧 호곡과 결전 등의 국가 세금이 일제에 의해 혁파되고 수취당하는 현실에서 국권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의병이 이런 국가세금을 군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 양반 부호는 그 동안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만큼 국가 위급상황에서는 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한편, 운강은 양반 권세가들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력이 쇠약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득권층의 무사안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에도 역시 양반 권세가는 오히려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48) 나아가 양반 집권층은 오히려 강도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재촉한 것으로까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기항전에 투신한 뒤 1907년 10월(음)에 발표한 「再檄告文」은 특히 양반관료 사대부 계층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처신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각성과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지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운강은 여기서 그동안 기득권을 향유한 권세가들은 의병을 외면한다고 비난한 뒤, 일제에 국권이 유린된 한국의 실상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일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7) 「再檄告文」, 『國譯雲崗李康全集』, 74-75쪽

48) 「答黃淳一」(戊申年 9월 5日), 『國譯雲崗李康全集』, 53-54쪽

의병을 강하게 만들고 도적(일제-필자)을 약하게 한다면 어찌 편안한 곳이 없으랴만, 의병을 약하게 만들고 도적을 강하게 한다면 반드시 魚肉의 禍(죽임-필자)를 당할 것이니, 어디에서 벼개를 높이하여 편안히 잘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 농부나 상인 같은 백성에게서 나왔다면 오히려 용납할 수 있으나, 모두 관료와 사대부의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 淵源 있는 世家의 자손이 감히 하는 말이니, 어찌 진실로 슬프고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sup>49)</sup>

그는 기득권층의 관망적 태도가 결국 한민족의 일제 구축의 결집력을 희석시켜 일제의 한국침략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나아가 기득권층의 이러한 방관적 자세는 결국 자기파멸로 귀착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던 것이다.

## 5. 맺음말

유년 시절의 이강년은 특별한 師承없이 일반적으로 학자적 소양과 유교적 가풍에 경도되어 있던 집안 분위기에서 가학을 통해 학문을 닦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운강은 경학을 중심으로 문장과 詞章 등 학문적 바탕을 어느 정도 탄탄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강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특히 조부 李德儀와 백부 李起宅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무과 급제 후 삭주부사를 지낸 백부는 일찍 타계한 부친의 역할을 대신해 운강의 학문과 장래를 지도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운강이 무과에 급제, 출세할 수 있었던 데도 백부의 영향과 지도가 컸을 것이다.

운강은 고종 16년(1879)에 22살의 나이로 무과에 합격, 관직에 나아가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司果(중6품)에 임명되었다가 宣傳官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884년 갑신정변이 나던 무렵 관직을 사퇴하고 향리 문경으로 돌아와 은둔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연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895년 갑오경장 등 일련의 일제침략으로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게 되자,

49) 「再檄告文」(丁未年 10月)



운강도 1895년 1월 항리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된다. 관직생활 중 시국의 혼란상을 직접 목도한 운강은 청일전쟁 직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유린되던 상황에서 충군애국의 순수한 의병정신이 발로되면서 을미의병에 동참하게 된다. 곧 운강의 을미의병 참여는 유생의 신분으로 일반적으로 견지했던 충군애국사상의 자연스런 표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과 사상 면에서 운강이 일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은 을미의병에 동참한 가운데 화서학파의 정통 도맥을 승계한 유인석의 문하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이다 이때부터 운강은 화서학파의 학문 요체인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에 입각한 존화양이론을 철저히 體認하게 되었으며, 화서 문파의 여러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며 견실한 학맥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운강은 스승 의암으로부터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에 입각한 화서학파의 尊華攘夷思想의 틀을 철저히 계승했다 존화양이사상을 體認한 운강은 항일투쟁의 선명성과 강도를 한층 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론적인 무장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그러므로 운강의 후기의병의 궁극적 목적은 존화양이의 의리 구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후기의병 시기의 운강의 항일전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운강은 1907년 5월에 가서야 재기항전에 투신하지만, 실제로는 존화양이론의 구현을 위해 1905년 을사조약 직후부터 항일전을 집요하게 갈망하고 있었다. 재기항전에 대한 신념 역시 운강의 항일투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귀착되는 것이다.

운강은 일제 침략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상황에서도 자주적, 주체적 국권수호론을 확고히 견지했던 인물이다. 곧 운강은 청을 비롯한 외국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령 외국의 힘으로 일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외국에 의해 또다시 국권이 침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는 한민족의 자주·주체적 역량에 의한 국권회복만이 민족의 전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의 냉엄한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주체

적 자각이 그로 하여금 항일전선에 투신, 일제 구축의 길로 나서게 한 동인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운강은 존화양이사상과 함께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입각한 충군애국정신도 견지하고 있었다. 의리와 명분사상에 철저히 경도되어 있던 운강으로서 이런 신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충군애국정신은 곧 운강의 거병에 중요한 정신적 동기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의병활동의 지향목표가 되는 것이다. 의병의 충군외식의 발로 현상은 일반적으로 전국 의병의 보편적 경향성을 노정하지만, 의리와 명분에 깊이 경도된 운강과 같은 화서학과 성원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끝으로 운강은 항일전을 수행하는 동안 준비조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 깊은 애착을 보이며 민폐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성에 젖어 무사안일의 관망적 자세를 보이던 양반 권세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들 기득권층이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결국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제국 시기에 국민총력전으로 승화된 의병전쟁의 중심에 섰던 이강년은 화서학파의 실천적 학문체계인 존화양이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던 인물로, 이를 바탕으로 항일전의 투쟁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는 이런 학문 요체를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견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충군애국 의식이 그대로 구국항일전으로 승화됨으로써 운강의 항일전은 더욱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